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본부제단 시민초청강연회 성공적으로 개최

“감로를 받아 면역력을 키워야 괴질을 이길 수 있어”

본부제단(회장 윤봉수 승사)에서는 8월 7일(금) 오후 5시 <괴질을 이기고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시민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일 년 중에도 가장 무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새식구들이 제단을 방문하였으며 그 중에는 현 방송 카메라 감독과 언론계에 근무하는 분, 그리고 제단 주변에 사는 부친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메르스라는 괴질이 한국을 강타하여 전 국민을 발발 떨게 만든 지가 바로 한 달 전이었다. 치사율이 40% 넘는다는 메르스에 안 걸리려고 국민들은 시장, 백화점, 수영장, 공공장소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회피하며 집에서 나오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고, 요커(중국 관광객)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자제하는 바람에 관광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은 누구나 병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죽기 싫어한다는 것이 본능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본지 기자가 김종만(승리신문사 사장) 강사를 만나 보았다.

Q: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괴질이 또 발생할 것인가?

A: 그렇다. 오늘날 인구(人獸)공통감염병이 문제다. 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쉽게 일으키면서 우리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부에 인류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 피의 원리에 따르면 병균이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으면 장구벌레 생기듯이 피속에서



휴가철임에도 많은 새식구들이 강연에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를 더욱 달궈주었다

서 병균이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다른 것인가?

A: 호흡기 바이러스는 피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인체에 들어와 감염 또는 전염되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하지만 피가 정결해 아만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므로 피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간의 타락으로 메르스보다 치사율 높은 괴질 발생한다

Q: 오늘날 대기가 공해로 말미암아 심하게 오염되었고, 수질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 공기오염, 수질오염으로 괴질이 발생하는 것인가?

A: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괴질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타락

이다. 공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은 인간들이다. 인간의 생각의 물질이 공기속으로 퍼져 만물을 오염시킨다. 인간이 뿜어내는 사탄 기운으로 말미암아 메르스보다 더 강력한 치사율을 가진 괴질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Q: 인간이 뿜어내는 사탄 기운?

A: 인간의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다. 인간에게서 방출되는 생각의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쁜 생각을 하면 만물을 약화시키며, 좋은 생각을 하면 만물을 강하게 한다.

Q: 어떻게 하면 괴질에 안 걸릴 수 있나?

A: 괴질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걸리게 된다. 메르스에서도 보듯이 같은 병

실에 있다고 다 메르스에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발병하였다. 따라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감로를 받으면 면역력이 강해져

Q: 면역력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A: 약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이며 방편적인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가지고 오신 감로(甘露)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진다. 감로는 병마(病魔)를 비롯한 모든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의 영이다. 따라서 감로를 받게 되면 점점 면역력이 강해진다.

Q: 감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A: 승리제단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임을 100%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감로를 받아 어떤 괴질에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

강연회를 기획한 주최(특별전도팀)측에서는 전국민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 피크에 강연회를 개최하여 과연 강연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더욱이 외부 강당이 아니라 승리제단 내부 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니 더욱 우려가 되었다고 한다.

뚜껑을 열어 보니 그런 우려를 한방에 날려 보내버렸다. 주최측은 입을 모아 “구세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며 성공적인 강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사는 반대생활이 자유율법이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휴가철에 강연회를 개최한 주최측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2)

“이 사람의 생일이 곧 여러분의 생일”

오늘은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가지라면 한 몸이 되는 고로 이 사람의 생일이 곧 여러분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해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 생활을 해야, 이 뜻 깊은 날의 의의가 되살아나는 것이지,

세상의 무슨 기념행사처럼 허례허식(虛禮虛飾)으로 움직여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갱생일(更生日)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는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 매진하도록 하세요!*

구도의 길

전도 안 하는 게 죽을죄의 동참죄

우리는 죽을죄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전도 안 하는 게 암만 죽을죄라고 말씀을 하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 헬기를 부러도 죽을죄, 시가 질투를 해도 죽을죄, 뒤돌아보는 음란죄도 죽을죄, 내 모든 행동과 생각 자체가 다 죽을죄이니 암만 구세주께서 죽을죄라고 겁을 주어도 전혀 겁먹지 않고 있다.

전도 안 하는 게 왜 죽을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세상 사람들은 호흡하면서 선악과가 되는 사람의 물질을 공기 속에 내뿜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마시고 있다.

1980년 초에 미국 ABC방송국에 출연한 영생론자에게 앵커가 세상 공기에 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독이 든 공기를 호흡하면서 영생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공기를 생명과일로 만들어 먹을 수 없으면 영생은 있을 수 없다. 사망의 물질을 마시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을죄이다.

타인이 죄를 못 지게 해야

그렇다면 전도 안 하는 게 왜 동참죄인지 생각해 보자. 타인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동참죄라고 한다. 즉 동참죄를 안 지으려면 타인이 죄를 짓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며 선악과를 매일 내뿜고 있

다. 실상 공기오염의 최대 문제는 선악과로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놔두고 있는 것이니 동참죄가 되는 것이다.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동참죄를 만날 지면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의 주체가 되어야

한편 전도를 안 하는 게 동참죄라는 말씀에는 이 세상 사람들 전체가 구원이 되지 않는 한 영생은 없다는 뜻이 들어있다. 구세주가 나온 이상 소수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인류 전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기 일부만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왕의 변역에서 서서 구원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구원을 당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객체가 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셨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는가의 문제라고 하셨다. 실마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으며, 제단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구원을 못 얻겠는가, 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영생의 역사에 정해진 때는 결코 없다. 몇 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말자.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5지역 2개월 연속 1등

등은 1지역이다.

윤봉수 회장은 “7월도 6월에 이어 5지역이 1등을 차지하였다. 1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현금도 현금이지만 전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면면이 고무 탄탄해야 된다.

신순이 권사는 5지역 지회장으로서 전도와 현금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인 1등도 차지하였다. 8월에도 좋은 성적을 내주기 바란다”고 치하하였다.

또한 윤 회장은 “자유율법을 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여 말했다. 하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부득이 앞으로 큰 소리를 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자유율법을 여기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

다. 이 길은 나를 죽이는 길이다. 내 생각이 바로 마귀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행동까지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명심하자.”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 3등: 1지역(지역장: 김종만, 지회장: 박경숙)
- 구역 1등: 2구역(구역장: 손경선)
- 2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3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2등: 김민숙 집사
- 3등: 손경선 권사*



승리제단 윤봉수 회장은 8월 4일(화) 본부제단 전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7월 성적 우수 지역과 구역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7월 지역 1등은 5지역이 차지했으며, 2등은 4지역, 3

경축 85회 성탄절

2015년 8월 12일

구세주 탄강하심을 경축드립니다